

---

## 루마니아의 언어 정책

엄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 · 발칸연구소 연구 교수

---

### 1. 루마니아어에 대해서

루마니아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이니만큼 루마니아의 언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언어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 계보학적인 측면에서 루마니아어는 발칸 반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라틴어가 그 기원이 되는 언어이며 오늘날 여러 언어 구조에서도 라틴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철수한 이후 이 지역의 유일한 라틴어로 고립되면서 이 언어는 주변의 슬라브어, 터키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변화하여 서유럽의 라틴어에서 발전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과는 어휘 구조 등에서 다소 다른 언어로 발달하게 된다. 이 사실은 루마니아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어 그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 루마니아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변곡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략 A.D. 2세기에서 6~7세기 사이의 제1 단계, 6~7세기에서 11~12세기 사이의 제2 단계, 13세기에서 현재까지의 제3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I. Coteanu, 2009:

130~226). 다뉴브 강과 남부 카르파티아 산맥 그리고 흑해를 주요 지형적 경계로 생활하던 제토-다치아인들은<sup>1)</sup> A.D. 106년 로마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 식민지 개척자들과 공존하면서 라틴어에 동화되어 가는데 이 시기가 제1 단계에 속하게 되며 공통 루마니아어(Common Romanian language)가 형성되는 기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제2 단계에서는 주변 슬라브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공통 루마니아어가 이른바 4대 방언<sup>2)</sup>으로 분리되어 존재했던 시기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중세 봉건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는 제3 단계에서는 4대 방언 가운데 근대 루마니아어의 출발점이 되는 다코-루마니아 방언이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며 발전하게 되는 시기와 비슷하다. 이 기간 동안 다코-루마니아 방언은 헝가리어, 터키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어휘적인 면과 정서법에서 라틴어적인 모습을 많이 상실하게 되지만, 제3 단계의 마지막 부분인 18세기 후반부터 문어체 루마니아어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전근대적인 요소로서의 슬라브어, 터키어, 헝가리어 등의 영향은 매우 적극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한다. 18세기 말 이후 트란실바니아 학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 민족어 창조 운동은 루마니아 언어 정책의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 1) 오늘날의 국경과 지형을 기준으로 보면 다치아인은 루마니아의 서쪽 지역, 제티아인은 흑해 주변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크게 보아 트라키아인의 분파라 할 수 있다.
  - 2) 공통 루마니아어에서 분파된 다코-루마니아 방언(Dialect Daco-român), 메글레노-루마니아 방언(Dialect Megleno-român), 아-루마니아 방언(Dialect A-român), 이스트로-루마니아 방언(Dialect Istro-român)이다.

## 2. 근대 루마니아어의 형성과 언어 정책

근대적 민족어로서의 루마니아어에 대한 관념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곳은 당시까지만 해도 루마니아의 영토가 아니었던 루마니아 북서부에 위치한 트란실바니아 지역이다.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루마니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곳이었으나 정치적 권한은 오직 헝가리인, 세클레르인 그리고 독일인들로 구성된 의회에 있었다. 루마니아인들은 종교적으로 정교회 신자라는 이유로 제도권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루마니아 지식인 계층의 형성은 18세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8세기에 들어서 합스부르크 제국은 트란실바니아를 통합한 이후 이 지역의 헝가리인들을 견제하고 루마니아인들의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코-가톨릭<sup>3)</sup>이라는 새로운 연합 종교의 형식을 제시하고, 트란실바니아의 정교회는 이를 즉시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 루마니아 지식인 계층의 형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이후 연합 종교 형태를 받아들이며 개종한 신부들은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중 일부에게는 부다페스트, 비엔나 등에서 유학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루마니아의 역사,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신부들이 주축이 되어 계몽주의적 성격의 트란실바니아 학파의 기초를 이루는데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민족적 차별을 통해서 '루마니아 민족'이라는 개념을 본토에서보다 오히려 더 먼저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루마니아어가 라틴어에 뿌리를 둔 언어라는 사실을 알리고 루마니아어의 라틴어적인 특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것은 라틴어가 유럽의 고전어로서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에 대한 동경과 자긍심, 그리고 이와 함께 루마니아인들

---

3) 의례에서는 정교회 형식을 따르고 위계상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타협안으로 제시된 형태이다.

을 억압했던 헝가리인들이 열광했던 언어가 바로 라틴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를 중심으로 펼쳐진 트란실바니아 학파의 라틴어 복귀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문자 개정 운동이다. 루마니아어는 라틴어임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제국의 영향으로 고대 교회 슬라브어(Old Church Slavic)의 표기 체계였던 키릴 문자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쓰인 루마니아어 텍스트를 보면 슬라브 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문자 체계를 바꾸는 것은 단지 문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음성·음운론적, 형태론적 변화는 물론 정서법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에 들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고치는 과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루마니아의 지식인 사회가 라틴어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 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 근대 루마니아어는 로마자에 기반을 둔 철자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는 언어 통일화 정책이다. 당시 근대 루마니아어의 출발점이 되었던 다코-루마니아 방언은 지역별로 크게는 5개 적게는 2개의 하위 방언으로 분과되어 방언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언어의 혁신은 수도 부쿠레슈티가 위치한 문테니아 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언어적 규범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루마니아 문법을 규정하는 문법서와 어휘의 통일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전이 출간되기 시작한다. 문법서로는 미쿠(S. Micu)와 싱카이(Gh. Șincai)의 공동 저작물인 《Elementa linguae daco-romanae sive valachicae》(루마니아어에 나타나는 다코-로만어적 요소, 1780)가 인쇄물로 발행된 최초의 문법서이자 로마자로 서술된 책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전으로는 역시 미쿠(S. Micu)와 싱카이(Gh. Șincai)의 공동 저작물이며 마이

오르(P. Maior)에 의해서 완성된 《Lexiconul de la Buda》(부다의 어휘, 1825)가 최초의 인쇄된 형태의 사전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A. Bidu-Vrănceanu 외, 1997: 273).

세 번째는 신조어 정책이다. 문자 체계와 함께 이 당시 루마니아어의 외형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신조어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 18세기 이후 루마니아어의 신조어 생성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목표는 당시 어휘 사용에서 나타났던 너무나 많은 비라틴어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라틴어 혹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에서 어휘를 만듦거나 수입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신조어 도입은 상당히 강제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언어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변화의 과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각 분야의 많은 라틴주의자들의 합의와 노력이 있었다. 문인, 기자, 교육자 등 사회 전반의 지식인들이 기존에 사용되던 비라틴어 계통의 어휘들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라틴어 계통의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국민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에미네스쿠(M. Eminescu)가 지은 당시의 시 《Lucefărul》에서는 1,908개의 시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1,688개의 단어가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Th. Hristea, 1984: 16~17).

### 3. 몰도바 공화국(Republic of Moldova)에서의 언어 정책

근대기를 거치면서 루마니아어는 근대적 민족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오늘날의 루마니아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생략하기 힘든 부분이 과거의 루마니아 영토였던 프루트(Prut) 강 오른쪽의 바사라비아 지역(현재의 몰도바 공화국과 대부분 일치하는 지역)에서의 루마니아

어이다. 이 지역은 중세 봉건 국가의 성립 시기인 14세기부터 몰도바 공국(Moldova Principality)의 일부였던 곳이며 주민 대부분이 루마니아 인이지만 1812년에 러시아에 할양되면서 러시아화하게 되었다. 제1차 대전 이후 잠시 루마니아가 이 지역을 되찾지만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소비에트로 넘어가 오늘날까지 루마니아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18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지역은 대략 2세기에 걸쳐 러시아 제국과 특히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러시아어 공용화 정책이 강하게 진행되어 루마니아어의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소비에트의 몰락 이후 몰도바 공화국은 독립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미 인적 구성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 러시아화되어 있던 몰도바는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었다. 소비에트 기간 중에 루마니아어의 사용에 제약을 받았던 몰도바 공화국의 루마니아인들이 독립 이후 정권을 잡게 되자 언어법<sup>4)</sup>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많은 러시아인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 특히 소비에트 기간 동안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니스트루(Nistru) 강 동쪽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지역의 러시아 추종 세력과 준전시 상태에 이르는 독립의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러시아계와 루마니아계 사이에 언어적 헤게모니를 가지기 위한 독립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몰도바 공화국에는 러시아어의 지위가 우위에 있었지만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면서 상황이 변화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몰도바 공화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루마니아의 영토로 편입된 트란실바니아가 루마니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곳의 헝가리어 문제가 몰도바 공화국의 루마니아어 문제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대칭점을 이루

---

4)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루마니아어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고 있기 때문에 바사라비아의 루마니아어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트란실바니아의 헝가리어 문제에 대한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최근의 어문 규정의 변화 경향

루마니아어에 관련된 어문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고 관련 출판물을 만들어 내는 기관은 루마니아 학술원 산하의 요르그 요르단-알렉산드루 로세티(I. Iordan-AL. Rosetti) 언어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어문 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출판물을 만들어 내는데 정서법 사전인 《DOOM》, 문법서인 《GALR》, 언어학 사전인 《DSL》이 대표적인 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서법 사전인 《DOOM》은 루마니아어의 어문 규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출판물에서는 물론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에서도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에 개정 출판된 《DOOM》의 제2판인 《DOOM2》는 가장 최근의 출판본으로 같은 해에 개정 출판된 문법서인 《GALR》로부터 형태론적 규칙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2001년에 개정 출판된 언어학 용어 사전인 《DSL》에서 언어학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최근의 어문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DOOM2》의 정서법에 관련된 설명과 등재어 목록을 살펴본다면 최근의 어문 규정의 변화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DOOM2》를 중심으로 21세기 이후의 정서법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신조 외래어의 표기에 관한 규정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형태에서 좀 더 해당 외국어의 발음과 쓰기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외래어 가운데 특히 영어의 영향으로 어미가 특이한 형태에 대해서 전접어 형태로 나타나는 정관사와 복수형 어미가<sup>5)</sup> 하이픈으로

연결되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brandy'(브랜디)에서처럼 어미가 'y'로 끝나는 경우는 루마니아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며, 이 경우 정관사 'ul' 혹은 복수형 어미 'uri'는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서 'brandy-ul', 'brandy-uri'로 표기된다. 하이픈은 1단어 혹은 복수의 단어에서 사용되는데, 연결의 의미와 분리의 의미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부정(否定)의 의미를 가진 부사 'nici'가 부정(不定) 대명사 및 부정(不定)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를 결합하여 'niciun' 혹은 'nicio'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발음에 중심을 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형태론적인 부분에서는 명사, 관사, 수사, 동사를 중심으로 어문 규정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명사에서는 수(number)에서 새로운 복수 형태, 성(gender)에서 새로운 여성 명사의 형태, 격(case)에서 신조 합성 명사의 격 변화 위치의 변동이 나타났다. 관사에 있어서는 남성 명사 단수형에 주격 정관사가 사용될 경우에 구어체 언어에서 나타나는 'i' 줄임 현상에 대한 규정과, 정관사가 포함된 합성 명사에 대한 부정 관사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다.

어문 규정의 새로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크게 보아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규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새로운 어휘의 출현이나 기존 어휘의 의미적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 2) 외국어에서 도입된 어휘 사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어의 쓰기 규정에 부합되는 형태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 3) 외래어의 경우 최대한 발음과 유사하게 글을 쓰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

5) 루마니아어에서 정관사와 복수형 어미는 명사 끝에 바로 붙어서 위치하게 되면서 형태론적으로는 분리되지만 발음상 분리되지 않는 접어(Clitic)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 5. 맺는말

루마니아는 흔히 '슬라브 해에 떠 있는 라틴의 섬'으로 비유되고는 하는데 이를 통해서 루마니아어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틴어 가운데 유일하게 발칸 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 전체 루마니아어 어휘 가운데 슬라브어 어휘가 절반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대부분 라틴어 어원의 어휘라는 점, 로망스어이면서도 발칸 언어 연합(Balkan Language Union)의 언어적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점, 루마니아와 몰도바 공화국으로 분단된 한 민족 두 국가의 공통된 언어라는 점 등은 루마니아어의 특징적인 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면은 언어 정책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참고 문헌

- 이온 코테아누(2009), 《루마니아어의 구조와 역사(Structura și evoluția limbii române)》, 엄태현 역, 지만지.
- Hristea, Th.(1984), 《Sinteza de limba română》, București: Editura Albatros.
- Bidu-Vrănceanu, A. 외(1997), 《Dicționar General de Științe》, București: Editura Științifică.